

문학사라는 프리즘에 비친 20세기 한국근현대사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전5권)》 펴낸 장석주씨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씨가 한국 문학 100년사를 집대성한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을 펴냈다. 한국문학 100년사에 새겨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집단무의식을 밝히고 있는 이 책은 집필기간만 8년이 걸린 야심작. 기존의 문학통사와 달리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씨(45)가 한국문학 100년사를 정리한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전5권)》(시공사)을 펴냈다. 집필기간 8년에 편집기간 2년, 3천여권의 참고도서, 원고지 매수만 2만장에 달하는 '대작'이다. 이 책은 문학·역사학·사회학에서 그동안 축적된 실증적 연구자료를 섭렵한 후 이를 쉽고 재밌게 풀어낸 대중서란 점에서 기존의 문학통사와 다르다. 일반 독자들이 '문학사'를 포함한 인문학을 경원시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이 책이 일반인들만을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은 아니다. 연대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상이한 이론들을 대조 검증해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집이 되도록 했다. 또 이름만 들어왔던 인물·사건·사료들의 사진 1600여장을 함께 수록해 과거를 생동감 넘치는 '현재'로 되살려냈다.

문학이란 나이테에 새겨진 한국인의 삶

그는 10년 전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청하)를 출판한 혐의로 두달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몸이 묶여 있는 동안 그의 정신을 채운 것은 "내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회의 섞인 질문이었다. 무언가 근원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존재의 위기감은 자유의 몸이 됐을 때도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훌쩍 제주도로 떠나 서귀포에 방을 얻어 얼마간 머물다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는 출판을 하지 않겠다'와 '내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내 글'은 문학의 뿌리를 더듬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이 시작되자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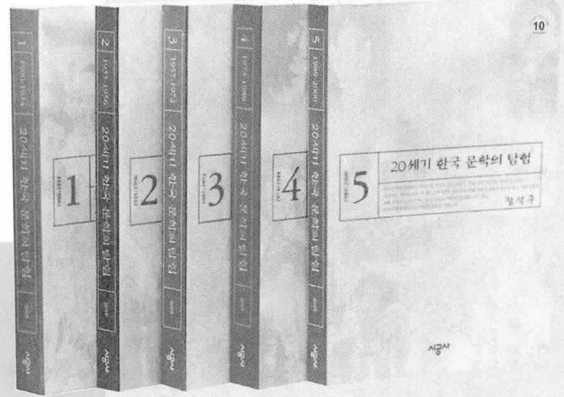


장석주씨

관련 분량에 문학사 100년을 축약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신문사 자료실 등에서 찾은 7만여장의 사진과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읽는 데만 몇 해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이 작업에 나설 때 30대 후반이던 나이가 지금은 4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학에 대한 막무가내의 미숙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학 100년의 나이테 속에 새겨진 한국인의 정서와 집단 무의식, 한과 상처는 고스란히 저에게 스며들어 새로운 사유와 상상력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책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를 각각 10년 단위로 끊어내 역사적 정황을 개관하는 글로 시작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의 연표도 함께 실었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할 때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취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



시공사/B5변형/564면 내외/각 25,000원

는 식이다. 본문은 1년 단위로 끊어 작가와 문학사조, 문단의 흐름에 따라 큰 장을 구성하고, 주요 문학작품과 문인들의 생애, 문단 안팎의 정황 등은 소제목 아래 자세히 설명했다. 윤홍길이가 1971년 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체험을 토대로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썼다는 식의 해설은 독자들을 현장감 있는 작품감상으로 이끈다. 또 장이 끝나는 곳마다 주요 단어를 해설하는 '잠깐 보기'를 삽입하고 권말에는 자세한 '찾아보기'를 실었다.

실증적 오류 바로 잡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문학을 아끼고 사랑했던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족현실과 운명을 함께 하는 동안 우리문학은 세계문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응전력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문학의 힘입니다."

하지만 장씨는 중남미 작가들의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자생적 문학흐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 실증적 오류들도 많이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문학사에 한번 잘못 전해진 사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시, 소설, 평론에 치중하다보니 수필과 희곡, 아동문학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것까지 다루기엔 기력이 모자랐던 탓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개의 책으로 보충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재미있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책이 인문적 소양을 섭취해야 할 청소년들을 문학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성민 기자